

## 기울어진 판세에 선거 동력 우려 반복 지역 현안도 유권자 의제도 실종

정리 : 부산민언련 2022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단 신문팀

- 모니터 기간: 2022년 4월 18일(월) ~ 2022년 5월 31일(화)
-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 모니터 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사 중 부산지역 기사 보도

### 1. 2022 6·1 지방선거, 부산의 입장에서 돌아보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이었다.

통상 지방선거 D-100을 기점으로 출마자가 거론되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시기상 대통령 선거의 시간 속에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부산일보는 <깜깜이 지방선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사설, 2/22)에서 지방선거를 확대하는 중앙 정치권을 비판하며 저조한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 획정 지연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제8회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 ‘허니문 대선’, ‘포스트 대선’이라 수식하며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대선의 연장 격이라 규정했다(참고. 신문 3차 모니터 보고서).

중앙정치가 아닌 부산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제8회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외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여럿 있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2021년 4·7 보궐선거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에 제기된 의혹,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이 일찍이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첫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무엇보다 만 18세 시민이 참여하는 첫 교육감 선거로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했다. 특히 두 후보는 공천이 한창일 때 일찍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하윤수 3/21, 김석준 4/25). 그만큼 언론은 두 후보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더 있었음에도, 정당 공천 시기에 교육감 선거보도는 지역정치권, 대통령 당선인과 특정 후보의 '인연'을 강조하는데 머물렀다.

앞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으로 개편하는 안을 포함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기대가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의 진보 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부산시당은 3월 30일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해 13명의 단일후보를 확정하면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의 시의회 입성을 위해 연대했다.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도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를 늘리고, 한 곳도 없는 4인 선거구를 10곳 신설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부산일보, 5/3). 하지만 획정위의 조정안은 무산됐고, 부산시의회는 지방선거를 35일 앞둔 4월 27일에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국제신문은 4월 29일 자 사설 <4인 선거구 달랑 1곳...민주당의 지방선거 내로 남불>을 통해 정치개혁 주장이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 2. 2022 지방선거 신문보도 모니터 6차례 발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지방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2022 지방선거보도민언련감시단\_부산)은 지방선거 D-45를 기점으로 모니터를 시작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부산지역 선거'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를 진행했다. 총 6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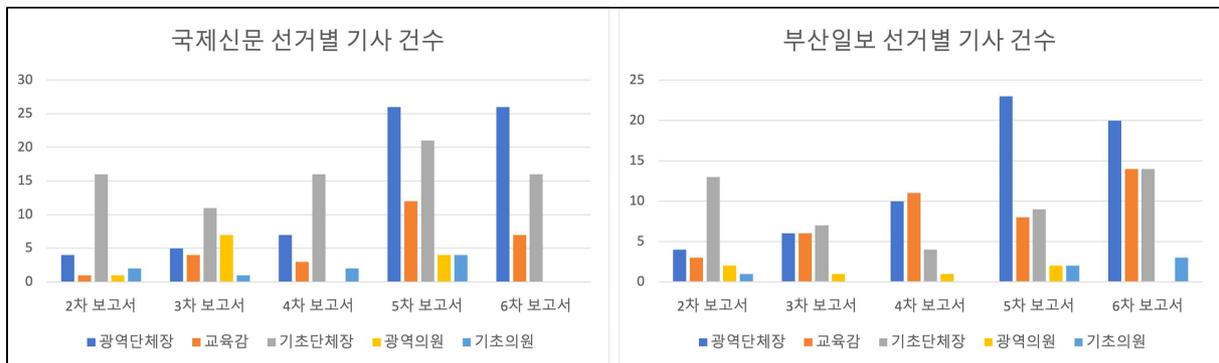
1·2차 보고서 기간(4/18~5/1)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로 각 정당의 공천 시간이었다. 이에 보도 내용도 공천경선에 집중됐다(참고. 표1). 모니터 보고서는 공천 과정·시스템에 대한 점검 부재와 갈등 부각을 지적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교육감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검증 보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의 정치 논리로만 보도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전달, 검증, 분석 등)	0	1	1	정책(전달 검증 분석)	0	5	5
공천/경선	10	11	21	공천/경선	14	13	27
선거판세 여론조사	0	0	0	선거판세 여론조사	3	0	3
행보/동정	5	2	7	행보/동정	6	3	9
선거전략	1	1	2	선거전략	0	1	1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등)	0	0	0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0	0	0
선거 사무(선거구획정 등)	2	0	2	선거사무	2	1	3
기타	1	2	2	기타	0	4	4

△ <표 1> 보도 내용별 건수 (좌) 1차 보고서(4/18~4/24), (우) 2차 보고서(4/25~5/1)

3차 보고서 기간(5/2~5/8)은 D-30진입 시기로 정당의 공천경선 마무리 단계였다. 선거 주변부 정보에 가까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거대 양당의 공천 내용을 강조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광역비례대표 의원은 보도하지 않거나 부족해 유권자보다는 정당 중심 선거보도가 이어졌다. 부산일보는 선거기획으로 부산시장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고, 국제신문은 유권자 행동을 보도하기도 했다.

4차 보고서 기간(5/9~5/15)은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되고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보도 역시 본궤도에 올랐다. 5월 9일 자 신문에 국제신문은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부산일보는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라며 공천 결과를 정리했다. 공천이 마무리됨과 함께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중심의 선거 보도가 이어졌다 (참고. 그림1)



△ <그림 1> 선거별 기사 건수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 11명 중 10명이 단수공천을 받은 만큼 공천 이후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국제신문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와 부산일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현장에서 만나다’는 후보가 내세우고 싶은 경력, 슬로건, 주요 공약 등을 나열하는 기사 형식이었다. 심지어 부산일보는 8개 지역구의 기초단체장만 ‘현장에서 만났다’.

5차 보고서 기간(5/16~5/22)이었던 5월 19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보도 건수도 대폭 증가해 대부분의 보도가 늘었지만, 그중에서도 행보·동정 기사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군소정당 출대도 여전했는데 특히 부산지역 4개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출정식 개최 소식마저도 <이 와중에 중앙당 성추문까지...부산 정의당, 제3당 지위 지킬까>(부산일보, 5/18, 5면)에서 한 단락 할애에 그쳤다.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 기획에서도 군소정당 후보 출대가 이어졌는데, 국제신문 ‘부산시장 후보 맞

짱 토론회'와 부산일보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모두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제외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가 부재한 시점에 '맞짱', '묻다'와 같은 선거 기획만 내놓음으로써 언론이 해야 할 '검증'의 역할을 상대 후보의 몫으로 돌려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4·7후보 검증 시리즈', '4·7쟁점현미경'과 같은 기획을 통해 언론이 '직접' 후보와 공약을 검증했던 것과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6차 보고서 기간(5/23~5/29)에 들어서야 교육감, 기초단체장, 교육감의 공약을 검증하는 선거기획 기사가 이어졌다. 국제신문의 '공약 팩트체크'가 대표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어반루프'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부산일보의 '후보 공약 딥플이'는 검증보다는 상세한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신문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통상 지방선거 두 달 전, 선거 직전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부산일보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보도를 하지 않았고, 국제신문만 한 차례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로 박형준 후보의 인터뷰를 배치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에 '돌직구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5월 14, 15, 17, 18, 21일에 걸쳐 부산시장 후보 인터뷰 기사를 배치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선 4월 27일, 5월 5일, 5월 26일로 기사 간 연속성이 없었다. 무엇보다 박형준 후보 인터뷰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여지도 있었다.

	모니터 기간	선거 일정	보고서 키워드
1차 보고서	4/18~4/24	예비후보 등록(~5/11) 국민의힘 공천시험(17일) 각 정당 공천	공천 갈등 부각 공천 과정 점검 부재 지역의제 발굴 부재
2차 보고서	4/25~5/1	선거구획정(27일)	기초단체장 공천 치중 양당 중심 보도 지역의제 확장 필요 교육감 보도 정파성 선거구획정 보도 불친절
3차 보고서	5/2~5/8	후보 확정	공천 결과 주요 보도 D-30, 판세·선거전략 정치무관심 우려 선거기획 유권자 행동 보도
4차 보고서	5/9~5/15	후보 등록(12·13일)	후보·공약 단순 전달 광역·기초의원 보도 감소 선거분위기 우려 유권자 행동 외면

			현직프리미엄? 후보띄우기?
5차 보고서	5/16~5/22	공식선거운동(19~31일) 선거공보 발송(22일)	기획기사 본격화 군소정당 후보 확대 후보 간 공방으로 검증 대체
6차 보고서	5/23~5/29	사전투표(28·29일)	공약 중심 선거기획 공식 후보자 토론회 외면 여론조사 보도 사전투표 앞둔 보도 경향

△ <표 2> 2022 6·1지방선거 타임라인 및 보고서 키워드

### 3. 2022 6·1 지방선거 부산지역 신문보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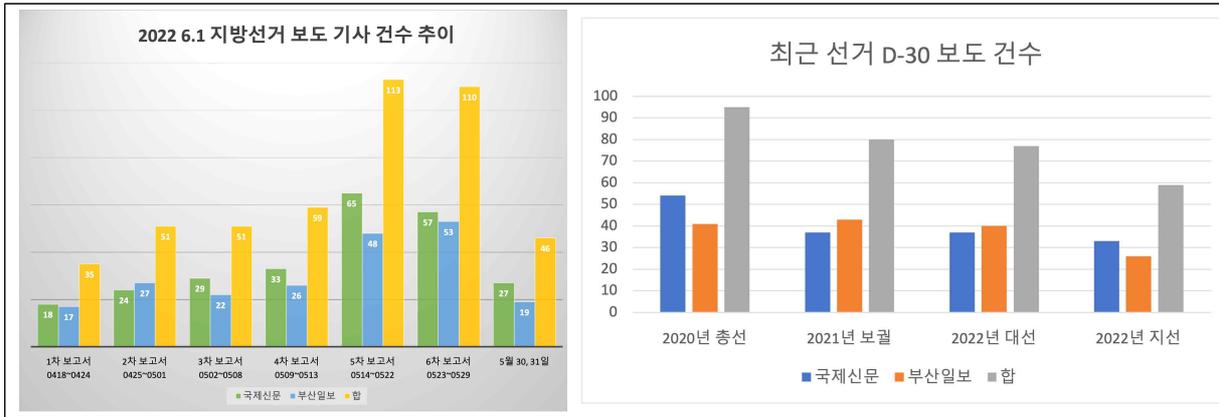
대통령 선거 이후 85일 만에 치러지게 된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상황 앞에서 지역신문이 앞다퉈 우려한 것은 ‘떠오르지 않는 선거 분위기’였다. 부산일보는 <관심도 떨어진 PK광역단체장 선거…수도권 대진표는 ‘흥행’ 예고>(4/11, 4면)를 통해 광역단체장 거대 양당 후보가 경선 없이 본선을 치르게 된 것을 두고 ‘김이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일보에서는 <민주 ‘대선 열기’ 어디갔나…썰렁한 부산시장 선거 출정식>(4/19, 6면), <분위기 안 뜨는 부산 지선…“전국 최저 투표율 나올라”>(5/6, 1면), <분위기 안 뜨는 부산 지방선거>(5/12, 사설)와 같이 ‘선거 분위기’ 자체를 기사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선거 결과를 단정 지은 기사 제목을 내보이기도 했다. 부산일보 <국힘 국회의원들 “지선 완승 기쁘지만은 않아”>(5/23, 5면)와 국제신문 <시의회 교섭단체 쟁탈전…민주 “우리도” 국힘 “우리만”>(5/31, 3면)이 대표적이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완승’을 확정하고, 시의회 독식 여부를 기사화 한 것이다.

선거 분위기, 선거 무관심에 대한 우려와 잠정 지어 내린 기울어진 판세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저조한 선거 보도 건수, 부실한 기획 기사, 검증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 특징1. D-30, 선거보도 51건! 최근 선거 중 가장 저조

D-30을 기준으로 2022년 6·1지방선거는 59건이었다(국제신문 33건, 부산일보 26건).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1년 보궐선거의 D-30 당시 보도 건수와 비교해 봤다.



△ <그림 2> 최근 총선, 보선, 대선, 지선 보도건수 추이

2020년 총선 95건(국제신문 54, 부산일보 41), 2021년 보궐선거 80건(국제신문 37건, 부산일보 43건)으로 두 선거 모두 2022 6·1지방선거보다 많았다. 가장 최근 선거였던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7건(국제신문 37건, 부산일보 40건)이었다. 보도건수로만 봤을 때, 선거 한 달 전 보도는 이번 6·1 지방선거가 가장 저조했다.

플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지역신문은 사실과 칼럼으로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고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역언론은 총선, 대선보다도 못 한 선거보도 건수를 보여줬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겠지만 총선, 대선과 비교했을 때 지방선거에서야 말로 지역언론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특징2. 늦어진 선거 기획, 2018년 지방선거 보도와 비교해 보니...**

국제신문	부산일보
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부산시장 후보 맞짱 토론회 공약 팩트 체크 부산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부산기초단체장 후보-현장에서 만나다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부산시장·기초단체장 공약 ‘딥’ 풀이

△ <표 3> 2022 6·1지방선거 기획보도 목록

국제신문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기획 ‘시민의 정책제언(부산참여연대 공동 기획)’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 1,072명에게 공약 제안을 받아 소개하는 ‘시민선거캠프 동백’ 기획을 선보였다. 4월 14일 자 1면을 통해 캠페인 진행을 알렸고, 이후 5개 분야 100개 공약으로 재구성해 각 시장

선거 캠프에 전달, 채택수용 여부를 질의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었다.

국제신문 기사로는 선거 보름 전 게재됐고 100자로 작성한 공약을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는 데 그쳤다. ‘시민선거캠프 동백’의 일부만 기사화해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 한 달 전 보도를 시작해 부산시 조직, 산하기관 ‘관피아’, ‘숙의민주주의’, ‘건강·환경’,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바 있다.

[참고]

[국제신문 <6.13지방선거…시민의 정책 제언 <1> 부산시 조직부터 바꾸자>\(2018-04-18\)](#)

[국제신문 <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1> 시민 제안 공약 분석>\(2022-05-18\)](#)

또 국제신문은 ‘시민패널단에 듣는다’라는 기획도 마련했는데, 이 역시 선거를 앞둔 마지막주에 보도했고 심지어 복지정책 분석은 사전투표 이후에 보도해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당시 국제신문은 ‘주목 이 공약’이라는 기획으로 선거 보름 전부터 생활복지, 일자리·민생, 환경, 대중교통, 소외계층 분야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공약을 정리해 전달했다.

[참고]

[국제신문 <주목 이 공약 <1> 생활 복지 분야 정책>\(2018-05-30\)](#)

[국제신문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1> 부산시장 후보 청년정책 분석>\(2022-05-27\)](#)

부산일보와 비교했을 때 유권자로부터 직접 공약 제안을 받고, 시민이 직접 후보의 정책을 분석하는 기획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시민으로부터 받은 정책과 평가를 후보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후보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에게도 후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향후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기획보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부산일보는 유권자,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보도 기획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국제신문과 같은 시도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클릭! 지방선거 맞춤형 후보 찾기 ‘마이보트’>와 같은 기획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지방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 보도 기획이 더욱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6.1지방선거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기획을 평가해 보자면 유권자, 시민과 지방선거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국제신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두 신문사 공통적으로 선거 기획 보도 시기가 늦어졌고, 유권자와 시민보다는 후보자와의 토론, 인터뷰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특징3. 지선, 총선, 대선... 시간이 흘러도 선거가 바뀌어도 again 가덕신공항!



△ <그림 3> 부산일보 가덕신공항 이슈 강조 헤드라인 (좌) 2018/05/07 (우) 2022/05/18

선거 쟁점 형성 측면에서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경제활성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등이 이슈로 떠오른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쟁점에 대한 주목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공법' 정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2018년 지선부터 총선, 보궐, 대선 이번 지선까지 4년이 흘러 지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늘었고,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후보자의 역할에 맞는 선거 의제 설정이 필요한데도 '가덕신공항'만 띄우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2018년 지방선거 보도를 되짚어 보면, 당시 언론은 거대 개발담론과 함께 환경 이슈를 띄우기도 했다.

[참고]

- 〈시장 후보들 '환경도시 부산' 정책 뭉가〉(부산일보, 2018년 5월 4일, 사설)
- 〈거창한 공약보다 환경개선 바라는 유권자 의식〉(국제신문, 2018년 5월 18일, 사설)
- 〈유권자 눈길 잡는 데는 성공, 실현 가능성은 '글썽'〉(부산일보, 2018년 6월 11일, 3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선거보도 모니터 기간 광역단체장 후보 3인

의 이름을 검색어로 넣어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역시, 지역 현안이 치우쳤음을 보여준다(참고. 표2). 국제신문의 김영진 후보 기사의 연관어를 제외하고 모두 연관어에서 '가덕신공항'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덕신공항 외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역현안은 없었다. 부산시장 후보 기사에서 등장한 키워드 대부분이 상대 후보와 정당, 선거 행보에 치우친 반면, 지역 현안 발굴과 후보 검증은 소홀했던 것이다.

김영진 후보의 경우 3대 공약 중 하나였던 '대중교통 월 1만 원 무제한 이용'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 박형준 후보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모두에서 '업무협약'이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소더비 부산', '요즈마 펀드' 등과의 업무협약 대상이 논란이 됐음에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박형준 후보와 '업무협약은 검증의 키워드가 아닌 후보가 지난 임기를 평가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변성완 후보는 후보, 정당, 선거사무 외 공약 관련 키워드로는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가 유일했다.

국제신문-김영진 후보(26건)			국제신문-박형준 후보(74건)			국제신문-변성완 후보(58건)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박형준	5	67	부산	13.08	769	박형준	18.53	134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4.44	20	변성완	12.86	115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17.11	27
부산	3.53	321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8.89	37	부산	10.21	667
변성완	2	56	부산시장 선거	7.2	25	부산시장	7.24	163
지지율	1.5	31	민주당	6.15	188	부산시장 권한대행	5.54	13
기자회견	1.5	18	정의당 김영진 후보	5.48	18	민주당	5.48	188
6·1 지방선거	1.33	7	부산선대위	4.12	2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4.24	4
예비후보	1.33	6	간담회	3.53	14	김영진	3.53	45
부산분권운동본부	1.33	0	김영진	3.08	45	정의당 김영진 후보	3.33	18
대중교통	1	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4	8	지지율	3.2	37
선거전	1	10	부산시장 권한대행	2.18	11	6·1 지방선거	3.08	17
단일화	1	6	가덕신공항	2	69	지방선거	2.67	79
진보정당 단일	1	6	보궐선거	2	21	출정식	2.4	16
구심점	1	2	부산시장 후보들	2	6	총력전	2.4	4
대규모 사업	1	2	대한민국	1.71	11	윌팀	2.31	10
토론회	0.8	8	총력전	1.71	4	선대위	2.22	47
무제한	0.8	6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1.71	3	부산시장 선거전	2.22	4
중소기업	0.8	4	오른쪽 사진	1.71	2	가덕신공항	2	54
저소득층	0.8	3	김근모	1.5	2	본격화	2	8
공공형	0.8	2	구청장	1.33	82	선거운동 실무	2	3
노약자	0.8	1	토론회	1.33	19	후보자	1.71	42
대중교통 월 1만	0.8	1	지지총	1.33	11	선거전	1.71	15
동래역	0.8	1	코로나19	1.33	10	부산시장 후보 공약 분석	1.43	0
의료복지 시행	0.8	1	지지자들	1.33	6	경남	1.33	46
적극 검토	0.8	1	이성권	1.33	5	보궐선거	1.33	21
집중유세	0.8	1	시의회	1.33	4	토론회	1.33	21
청년세대	0.8	1	업무협약	1.33	3	예비후보	1.33	18
			시민 관심	1.33	2	국회의원	1.33	17
			선거대책본부장	1.2	7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1.33	4
			어린이 공약	1.2	1	차별화	1.33	4
						명예선거대책위원장	1.33	1
						선거대책본부장	1.2	7
						간담회	1	11

부산일보-김영진 후보(47건)			부산일보-박형준 후보(239건)			부산일보-변성완 후보(100건)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박형준	26.72	105	부산	30.48	515	박형준	50.24	224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15.67	52	부산시장 후보	20.57	142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23.62	31
부산시장 후보	10.48	101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20.44	62	부산	18.62	1398
변성완	9.92	107	변성완	16.04	158	정의당 김영진 후보	15.35	36
부산	9.07	681	정의당 김영진 후보	11.63	26	6·1 지방선거	14.12	67
6·1 지방선거	8.57	33	6·1 지방선거	11.31	31	김영진	10.23	93
사전투표	4	52	업무협약	4.87	20	민주당	8.43	503
후보 등록	3.2	26	차별화	4.42	22	부산시장 후보들	7.24	15
TV 토론회	2.86	8	플로팅 공법	3.68	8	부산시장 선거	6.74	28
노동자	2.31	32	사전투표	3.33	65	부산시민공원	6.52	12
김석준	2.31	13	윤석열 정부	3.33	37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4.67	6
정의당 제공	2.31	3	부산시장 선거	3.33	12	후보 등록	3.11	29
민주당 변성완 후보	2.22	19	부산시민공원	3.33	10	기자회견	3.08	41
생활밀착형 공약	2.22	6	가덕신공항	2.67	99	더불어민주당 제공	3.08	4
부산 출마자	2	6	울산	2.67	27	시장 권한대행	3	27
가덕신공항	1.71	41	특표율	2.47	21	TV 토론회	3	9
지지총	1.71	23	실현 가능성 변성완	2.47	0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2.77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1	8	가덕	2.4	112	윤석열 정부	2.73	65
합동유세	1.71	7	시정 앞 행복주택	2.4	10	지지총 결집	2.73	11
연일 강행군	1.71	3	소신 부족	2.4	4	위원장	2.4	125
정대현	1.6	9	후보 등록	2.31	14	정책 대결	2.4	19
유세차량	1.6	2	기념촬영	2.31	3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2.4	18
금융위	1.5	4	지역사회	2.18	15	김석준	2.31	22
영도	1.33	29	여론조사	2	15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2.22	6
압도적 지지	1.33	5	강행군	2	8	가덕	2.18	139
주민들	1.33	5	이날 협약식	2	2	이재명	2	38
집중 유세	1.33	4	한검그룹	1.67	18			
대중교통	1	20	전문가	1.6	25			
			합치	1.5	7			
			6·1지방	1.5	3			

△ <그림 4> 빅카인즈로 살펴본 광역단체장 후보 보도 건수와 주요 키워드